

□ 연구 논문

청소년 위기상담에 관한 통합

오윤선(Ph.D., 한국성서대학교 · 교수)

I. 여는 글

청소년들은 생물학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회 환경적 맥락에서 이전 시기와는 다른 역할과 기대 그리고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하는 도전감을 부여받는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도전감은 상당한 위기를 수반하는데, 이러한 위기는 청소년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한 가지는 위기가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과 외향적 문제행동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¹⁾ 오윤선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들이 느끼는 위기 경험의 정도는 하루에 1회가 17.70%, 일주일에 1회 정도가 37.07%로 나타났다.²⁾ 이를 통해서 볼 때 기독교청소년들의 54.77%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들이 많은 위기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동안 일반적으로 청소년 위기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발달심리학적 측면과 문제행동 측면에서 접근해 왔다. 그러나 기독교 청소년들의 위기 상황은 영적인 측면을 함께 다루어야 함으로 일반 청소년 심리 및 상담이론으로는 한계가 따른다.

청소년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상담학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통합론적인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 목회 현장에서 상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되기에 보다 올바른 신학적, 심리학적 학문의 토대에서 상담의 자리매김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독교상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 편향들은 신학과 심리학의 바람직한 관계모색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상담은 본질적으로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분야이기에 기독교상담가에게는 이 두 분야의 훈련, 즉 신학적 훈련과 심리학적 훈련이 동시에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상담의 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위기상담을 중심으로 신학의 입장에서 심리학을 흡수하는 흡수 통합적 입장에서 모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

1. 심리학의 역사와 기독교와의 관계

심리학에 대한 관심은 인간 역사와 더불어 같이 하지만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879년³⁾ 독일 Leipzig에서 Wilhelm Wundt가 처음으로 심리 실험실을 설립한 이후부터이다. 심리학의 흐름을 크게 구분하면 B. F. Skinner와 J. B. Watson에 의해 대표되는 행동주의 심리학, Sigmund Freud와 Carl Jung, Alfred Adler, Erikson에 의해 대표되는 정신분석학, Carl Rogers 와 Abraham Maslow에 의해 주도되는 인본주의 심리학, 그리고 초인격주의 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의 4대 세력 운동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Skinner, Freud, Rogers 등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지식의 원천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 그리스도인과 전체를 달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심리학이론은 신본주의적 기독교적 관점을 강조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17세기에는 천문학이, 18세기에는 물리학이, 19세기에는 생물학과 신체인류학이 과학과 종교적 신앙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 무대중앙을 차지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에는 심리학과 기독교는 둘 다 인간과 그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고체계가 지니는 전제와 방법이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기독교 심리학 사이에는 지난 한세기에 걸쳐 상당한 갈등과 긴장이 상존해 왔다⁴⁾. 이러한 긴장과 갈등속에서 심리학이 신학교에서 강의된 것은 1899-1900년에 종교심리학(Psychology of Religion)이라는 과목이 미국 Hartford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개설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Anton T. Boisen이 목사로서 여러 차례 신경쇠약에 시달리면서 세 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종교적 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다⁵⁾. 그리고 1920년대 중반에 Boisen에 의해 기독교상담이 시작되게 되었다.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의 한 부분인 기독교상담이 심리학의 발전으로 시작되었는데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있어왔다. 이러한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2. 심리학과 기독교의 통합이론

지금까지 기독교상담을 위한 틀로서 심리학과 신학을 조화시키려는 통합운동은 세 단계를 거치며 발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50년대에서 1975년까지의 시기로, 그리스도인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에 대하여 우호적 관심을 기울이면서 기독교와 심리학의 관계에 대하여 기초적인 개념을 소개하는 글들을 쓰기 시작했다. 둘째 단계는 1975년에서 1982년까지의 시기로, 심리학과 신학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각종 모델이 소개되면서 기독교심리학이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 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대표적인 학자들 가운데 1980년 초에는 Ronald L. Koteskey⁶⁾와 Gary R. Collins⁷⁾ 그리고 John D. Carter 와 Bruce Narramore⁸⁾가 있고 1980년 중·후반에는 Farns Worth⁹⁾, Jones¹⁰⁾ 및

Philipchalk¹¹⁾가 있다. 1980년 이후 통합 운동은 점진적으로 실제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고, ‘학문간의 통합(interdisciplinary integration)’이라는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¹²⁾ 통합적 유형에는 크게 심리학적 통합유형과 신학적 통합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두 분야 모두의 방법론, 분석 수준 등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의 원리를 찾는 것인데 이는 건전한 것도 간단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통합의 유형으로 흡수 통합론이 나온 것이다. 이는 Plantinga에 의해서 신학의 입장에서 심리학을 흡수하는 견해이다. Gary R. Collins도 “통합”은 신학과 심리학의 중도 입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두 학문간의 연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흡수 통합론은 복음주의 입장에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적 연구에 매우 적합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¹³⁾

Ⅲ. 청소년의 통합적 이해

1. 청소년의 개념 이해

청소년(Youth)을 의미하는 “adolescence”는 라틴어로 성장한다(to grow up) 또는 성숙에 이른다(to come to maturity)란 의미로써, 이 시기가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성장이 급속하게 발달하는 전환기적 인생의 특성을 수반하는 중요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Nielsen, 1991). 인간의 전 생애발달과정 중 청소년기에 대한 관심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철학자 Aristotle는 기원전 300년에 “청소년들은 이미 걱정적이고 성급하고 자기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쉬운 집단이다.... 그들은 자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든 도에 지나치기 때문이다”라고 청소년의 본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세에 와서는 청년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아동은 곧 성인이 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기도 하였다. 사실 청소년기

(adolescence) 또는 청소년(adolescent)이라는 말이 영어의 한 단어로 나타나게 된 것은 1430년 영국의 시인 John Lydgate가 자작시에서 청소년기 (adolescence)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이어서 1482년에 한 무명의 시인이 그의 시 “The Monk of Evesham”에서 7살의 두배수까지 걸친 연령의 시기, 즉, 15-21세기의 연령 기간”을 일컬어 청소년기(adolescence)라 하였다.

근대적 관점에서 청소년기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은 프랑스의 자연주의 철학자 Jean Jacques Rousseau이다. 그는 그의 저서 ‘Emile’에서 Emile이라는 이름의 사내아이를 내세워 그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각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강조하였고, 특별히 Emile의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서 정서적으로는 심한 갈등을 경험하는 15-20세의 시기’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Rousseau는 ‘Emile’에서 처음으로, 청소년기를 자기만의 가치와 장점을 정립하여 재탄생(rebirth) 혹은 제2의 탄생(the second birth)을 경험하는 시기로 간주하였다.¹⁴⁾ Rousseau가 처음으로 청소년을 개념적으로 확립했다면 청소년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청소년학을 정립한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 Stanley Hall(1844-1924)이다. Charles Darwin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 발달을 고찰한 Stanley Hall은 1904년 ‘청년기’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특징지었다. Hall 이후 Mead(사회문화적 상대론), Lewin(장이론), Mannheim(세대론), Ausubel 등에 의해서 청소년 연구의 방향과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급기야 1960년대를 전후해서 Erikson이 청소년기를 인생주기의 핵심적인 단계로 간주하면서 자아정체감(ego-identity)이라는 발달과업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Erikson의 이론을 현대 청소년 심리학의 모든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그의 이론적 업적이 오늘날 청소년 심리학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사춘기에서 시작하여 성인의 책임을 맡을 때까지로 생각되고 있으나 청소년기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의 조망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생리학적, 인지적, 사회적인면을 고려 할 때, 청

소년기는 사회적 자유가 허용될 때 시작되고 연령의 대다수가 법적, 경제적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끝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동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할 때 청소년기가 시작되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청소년기가 끝난다고 말할 수 있다.(Zimring, 1982)

2. 청소년기의 통합적인 특성이해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사이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급격하게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대다수의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며, 동시에 각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독특한 발달특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23절에 근거 할 때, 청소년들의 특성이해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이해에만 국한 할 경우에 청소년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비롯된 문제를 풀 수 없게 될 것이다.

James Fowler는 Piaget와 Kohlberg의 이론에 기초하여 신앙발달 이론을 피력하면서 청소년기를 제3-4단계로 구분하였으나 이보다도 온전한 신앙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청소년 신앙 정체성 발달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기를 전·후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 육체적 변화, 사고의 변화, 사회적 변화, 정서적 변화, 신앙적 변화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소년 초기의 특성

청소년 초기(early adolescents)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과도기 단계로 보통 그 연령층은 10세에서 14세 혹은 9세에서 15세로 규정된다. 이 시기는 인생주기상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호기심이 많고 때로는 소심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특성을 보인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육체적, 사고체계, 사회적 속성, 감정적 특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체적 특성

이 시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physical changes)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적으로 성숙하는 사춘기(puberty)라는 현상이다. 아동기의 5세와 9세 사이에 시작되었던 호르몬의 변화가 이 시기에 급속히 증가한다. 이 시기는 체형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아동인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여학생들은 음경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음부와 겨드랑이 밑에 모(毛)의 외관이 뚜렷해지고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가슴과 엉덩이가 발달하고, 허리가 상대적으로 날씬해지고, 생리가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보다 2년 늦게 호르몬의 변화를 경험한다. 남학생들은 성기가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근육이 발달하고, 음부와 겨드랑이는 물론이고 턱 부위에 수염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종종 몽정(wet dream)을 경험하기도 한다.

(2) 사고체계의 특성

육체적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청소년 초기에는 새로운 사고 방식이 발달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아동기의 “바로 지금(here & now)”이라는 즉흥적인 사고 체계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보다 수준 높게 사고하는 기술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즉, 이상(理想)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예측해 보기도 한다. 또한 과거에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신념을 탐색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기도 한다.

(3) 사회적 특성

청소년 초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social change)는 많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 청소년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변화와 청소년기에 발달되기 시작하는 새로운 사고 체계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 둘째, 부모와 사회로부터 청소년들에게 인정되는 어느 정도의 자유와 책임감이 사회적 변화를 유발시키는데 기여한다. 그 이유는 청소년 초기에는 아동기 시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많

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더 많은 장소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 시기에는 또래집단이 급속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짐차 이유(離乳)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 넷째, 청소년 초기에는 같은 성(性)을 우선적으로 친구로 삼는 것에서 다른 성과 친밀해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게 되고 학습하기를 시작한다.

(4) 정서적 특성

위에서 언급된 변화가 이 시기에 한창 발생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 결코 아니다. 청소년 초기에는 종종 자신에 대해 불확실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며 성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청소년 초기에 내적, 외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변화로 인해 이 시기의 생활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보일 수 있다. 만일 청소년 초기의 학생들이 어느 날에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다음 날에는 성인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5) 영적 특성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신앙을 원하기에 종교 철학이나 조직 신학과 같은 교리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고, 소망을 만족시켜 주며,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신앙을 원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벗어나 무엇인가를 하도록 조언해 줄 이상적인 인물을 추구한다.

2) 청소년 후기의 특성

후기 청소년(older adolescents)은 보통 그 연령층이 15세에서 19세로 규정된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storm and stress)의 시기로 어떤 때는 성인으로 행동하고 또 다른 날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발달 시기에 십대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도전적이고, 변화무쌍하고, 놀라울 정도로 창조적이고, 때로는 자극적인 특징을 보인다. 또한 십대들은 클럽활동에 흥미를 보이고, 그들의 집단활동이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십대 후반의 청소년들도 청소년 초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감정적, 사회적, 육체적, 신앙적 변화를 경험한다. 그러나 성인의 지원과 리더십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변화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1) 신체적 특성

여학생들은 청소년 초기의 급격한 변화를 마무리하게 되고 변화된 자신의 육체에 맞게 적응하게 된다. 남학생들은 이 시기에도 급격한 육체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여전히 급격한 육체적 성장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도전에 맞서게 된다. 남녀 청소년 모두는 자신의 흥미와 재능에 대해 더 나은 이상을 가지며, 이들 중 일부는 이러한 기술(skills)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쏟아 붓기도 한다.

(2) 사고체계의 특성

십대 후반의 청소년들은 12세-14세의 청소년들 보다 다른 차원으로 세상에 대해 생각한다. 비록 모든 십대 청소년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독특한 존재로 인식되어지길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발달, 친구들과의 우정, 다른 사람의 관계 등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과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십대 청소년들은 자신의 독립성을 외부로 드러내기 위한 방법들에 집착하기도 한다. 이렇게 외부로 드러내려는 독립성은 운전면허증을 획득하거나 자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동 등으로 나타난다.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도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려 한다. 즉, 미래의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직업의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직업의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나 능력 요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상급학교의 진학이나 졸업 후에 곧바로 직장생활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

(3) 사회적 특성

많은 십대 후반의 청소년들은 감독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도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relationship skills**)이 비교적 잘 발달되고 친구와의 우정이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결혼을 계획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성인들은 이러한 청소년 집단을 지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십대 초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던 것과는 다른 역할을 취하게 된다. 그들은 촉진자(**facilitators**)가 되며 청소년들이 리더십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또한 성인들은 조정자요 조언자가 되며, 청소년들을 위해 새로운 경험을 준비하는데 노력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더 많은 책임의식을 갖고 행동하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보다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이자 자원이 되어 주기를 원한다.

(4) 영적 특성

이 시기의 청소년들의 신앙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개인적인 신앙을 원한다. 신앙은 단순히 동의하는 사상의 나열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시기의 청소년들의 신앙은 감정적인 부분이 많고 초기때 보다 신앙적인 회의도 증가한다. 하지만 이 시기가 되면 추상적인 것을 이해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분별하게 된다.

IV. 청소년 위기상담의 통합 모델

1. 위기 상담

1) 위기의 개념에 대한 논의

Crisis라는 단어는 헬라어 **κρίσις** 즉 동사 **κρίνειν** 에서 온 것으로

로 인간 경험 가운데서 전환점(turning point)이나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분리(分離)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Crisis가 의학용으로 사용할 때는 환자가 회복하느냐 죽음이냐를 판가름하는 변화의 시기가 왔을 때를 의미하고, 동양에서 ‘危機’는 영어로 danger(위험)와 opportunity(기회)로서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이중성을 의미한다. 위기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은 나름대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Howard J. Clinebell은 “위기란 시간적으로 참으면 되는 위험이나 고통, 긴장 이상의 것이다”라고 하였고,¹⁵⁾ Collins는 “한 인간의 안녕에 위협을 주며 그의 일상적인 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사건 및 그러한 상황의 연속이다”라고 정의하였다.¹⁶⁾ 그리고 Judson J. Swihart, Gerald C. Richardson은 “위기란 흥분으로 마음이 들뜨거나 잠을 설치거나 깊은 생각에 빠지거나 채울 수 없는 공허감으로 허무해지거나 가슴이 막히거나 공포와 기대가 교차되는 순간으로” 말하고 있다.¹⁷⁾ 또한 Joseph Moore는 “위기를 사람의 심리적인 균형이 깨어지고 삶의 고난들에 대처해 나가던 일반적인 방법이 더 이상 제대로 통하지 않은 사건이다”라고 하였고,¹⁸⁾ Howark A. Halpern는 위기행동과 위기경험을 구별하였는데, 위기행동이 위기경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기행동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반드시 위기행동이 있다고 말 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Howark A. Halpern가 보는 “위기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느냐에 의해서 초래된다”는 것이다.¹⁹⁾ 우리나라 일반 상담심리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장호 교수는 “위기란 중요 생활 목표의 좌절 또는 생활 양식의 혼란에서 오는 과도한 긴장감이라고” 말하고 있으며,²⁰⁾ 우리나라 위기상담 분야에 저서와 역서를 많이 낸 정태기 교수는 “ 위기란 자신의 삶에 중대한 위협을 느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공포의 감정이다”라고 하였다.²¹⁾

위의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종합하면, 위기는 어떤 외적 위협에 대한 개인의 내적인 반응으로서 육체적, 감정적, 혹은 관계적 손상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Howard W. Stone(1982)

이 그의 저서 「위기상담」(*Crisis Counseling*)에서 “위기관 어떤 외적 위협에 대한 개인의 내적인 반응으로, 위기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이 반드시 병적인 것이 아니고 대응을 잘 할 경우에는 위기 이전 수준의 기능을 회복한다”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위기는 가능성과 위협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이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기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학자마다 견해 차이가 있는데, McSwain & Treadwell(1991)은 신체적 위기, 자아 위기, 인간관계 위기, 환경 위기, 영적 위기로, 정신의학자 Gerald Caplan은 단계적 위기와 우발적 위기로 구분 하였다. 발달적 위기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의 Freud는 각 발달 단계 만족감에 따라서 위기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심리학적 발달 이론을 주창한 Erikson은 발달 단계에 두 가지 기본 개념으로 점성적 원리(epigenetic principle)와 위기(crisis) 개념으로 두고 있다.²²⁾ 그리고 Hafen & Peterson(1993)은 재난의 위기를 그리고 사회 문화적 위기로 문화적 충격(cultural shock)을 말하는 학자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위기에는 크게 성장적 위기(developmental crisis)와 상황적 위기(situational accidental crisis)로 구분된다. 성장적 위기에는 개인과 가정을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개인의 발달 과정상 위기로는, 개인의 생활양식은 그의 환경 내에서 변화하는 상황이나 성숙된 계속적인 발달 과정 혹은 그 양자의 결합에 의해서 무단히 변화한다. 잠재적인 위기 영역은 모든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뚜렷한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변화의 기간 동안에 생긴다. 이 변화들은 출생, 사춘기, 성인초기, 결혼, 가족 구성원의 질병이나 사망, 갱년기, 노년기 등과 같이 생물학적인 면과 사회적인 역할면에서의 변화가 수반되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다. 둘째, 가족의 발달 과정상의 위기로는 개인의 생활단계와 병행하여 가족의 생활단계에서 나타나는 위기이다. 생활주기의 각 단계에서 상이한 형식으로 유발되는 이들 과업들은 개별 가족 구성원의 연령과 각 발달단계에서 그의 과업에 대한 가족의 지각에 따라 다르다. 가족에 있어서 과업들은 정서적 분리 대 상호의존, 자율성 대 다른 책임 등이다. 그리고 개인에

있어서 이들 과업들은 분리와 의존욕구의 해결, 친밀성과 성(性)의 정체확립, 자율성과 자기통제 및 자기가치 발달 등이 있다(F. H. Scherz, 1971). 성장적 위기에 비해 상황적 위기는 예외적이며 예측을 불허한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야기되는 정서적인 시련과 기능장애이다. 예를 들어 실직, 금전상실, 도움을 받는 사람 상실, 지위와 존경상실, 질병, 수술, 자녀사망, 결혼생활에서의 부정과 이혼, 정신병 혹은 알코올 중독, 신체장애, 원치 않는 임신, 혹은 결혼외 임신, 안정된 장소로부터 이동, 전쟁이나 불경기와 같은 거대한 사회적 재난 등이다(W. E. Oates, 1976).

2) 위기상담의 정의 및 목적

위기 상담은 인간의 성장(성숙) 과정의 위기상황에서 아주 위태롭게 되거나 단절되었을 때 요청되는 회복적 기능으로 짧은 기간에 도움을 제공하는 위기 중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기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단기간(4주에서 6주)에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는 상담이다. 위기 상담의 목적에 대해서 H. W. Stone(1982)은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서 적어도 위기 이전 수준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Gary Collins(1980)은 위기 상담의 목적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내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돕는다. (2) 불안을 감소시킨다. (3) 위기를 해결하는 기술을 배우도록 도와준다. (4) 성경의 원리를 알려줌으로써 위기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돕는다

3) 위기 상담의 역사적 이해

Sigmund Freud가 1906년 유명한 지휘자 Bruno Walter의 위기적 상황 즉, 마비된 오른팔을 치료한 사례가 있으나, 위기를 최초로 종교적 견지에서 보게 된 사람은 Anton T. Boisen이다. 그는 자신의 상담 경험과 여러 정신병원에서 관찰한 것들을 토대로 “*The exploration of the Inner world*”라는 책을 썼고 “*Religion in crisis and*

custom”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위기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위기를 하나의 위협으로만 보지 않고 아주 고조된 정신적, 정서적 성숙의 기회가 되어 영적, 정신적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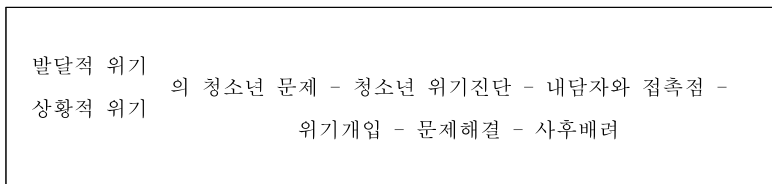
현대의 위기상담 이론은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연구소의 정신병 학자들인 Erich Lindemann과 Gerald Caplan으로부터 시작되었다 (Howard W. Stone, 1982). Erich Lindemann는 1942년 Boston 시의 Coconut Grove 나이트 클럽에서 발생한 화재로 490명이 사망하고 난 후, 급격한 슬픔이 가족이나 친지들을 괴롭혔을 때의 병리적 현 상을 중심으로 1944년 “Symptomatology and Management of Acute Grief”라는 논문을 쓰게 되었다. 그는 그 논문에서 슬픔이란 죽음에 대한 자연스럽고 필요한 반응이며 그 슬픔에는 일련의 단계들이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Gerald Caplan은 어떤 사람이 정 서적인 위협을 겪을 때에 그에 대해서 순응하는 반응과 순응하지 못하는 반응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46년 웰레스러 프로젝트 (Wellesley Project) 즉 위기 예방상담을 강조하는 정신건강 연구기 관을 세워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슬픔”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활발히 하였고, 계속적으로 “자살을 기도하는 행동”을 연구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슬픔의 이론”은 Jay E. Adams에 의해서 비 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Adam도 비판을 받으면서, 1970년 이후부 터 Stone, 80년 이후부터는 H. Norman Wright, 그리고 Judson J. Swihart · Gerald C. Richardson등이 위기이론을 정립하였고, 청소년 위기분야로 Rich Van Pelt(1995), G. Wade Rowatt(1999)이 어린이 분 야로 Andrew D. Lester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들의 저술들이 근래에는 우리 나라에 많이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위기론에 대한 단독 저술이 이광자²³⁾, 정태기²⁴⁾, 김기 태²⁵⁾ 등에 의해서 씌어졌다.

2. 청소년 위기상담 방법에 대한 통합 모델

상담자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취하는 방법은 위 기를 당한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리고 위기 상담 방

법은 성격이론으로부터 심리치료 접근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미 잘 알려진 Morley, Wilbur E(1970), Clinebell, Howard J(1966), Adams(1973) 등의 위기개입 이론과 Stone(1982) Judson J. Swihart · Gerald C. Richardson(1988), 일반상담심리학자인 Carl Rogers(1951) 그리고 이장호(1991), 이광자(1982), 이혜성(1999) 남상인(1999), 사춘기 청소년 위기 상담학자로는 Rich Van Pelt(1995) 등이 있다.

우리나라 일반 청소년 분야에 대표적인 종합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학’에서 이혜성²⁶⁾은 청소년 상담방법을 정신분석적 상담, 내담자 중심상담, 행동주의 상담, 인지치료 상담 등을 소개하고, ‘청소년학 총론’에서 남상인²⁷⁾은 인간중심 상담, 형태주의 상담, 실존주의 상담, 정신분석적 상담, 의사교류분석 등의 상담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청소년 위기에 대하여 어떤 상담 기법을 사용해야 하는가하는 확신보다 이러한 상담기법을 사용 할 수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춘기 청소년 위기 상담학자인 Rich Van Pelt도 청소년 위기상담에 대한 방법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에 비하여 ‘Handbook on Counseling Youth’라는 책에서 다양한 청소년 위기문제를 다룬 Josh McDowell은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경청, 공감, 긍정적 존중, 구체적 지침 제공, 적극적 참여, 알선 등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매우 구체적으로 기법을 다루고 있으나 초기 위기적 접근이 미약하다. 본 연구자는 Judson J. Swihart, Gerald C. Richardson의 내담자 초기 평가, 이장호의 위기상담 진행 7단계, 이광자의 위기 조정의 4단계, 그리고 위기에서 제시된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흡수 통합하여 청소년 위기상담 기법을 종합하면 <도-1>과 같다.



<도-1> 청소년 위기상담 방법에 대한 통합 모델

1) 청소년 위기진단

상담자는 내담자가 실제적으로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담자는 위기 상황의 내담자를 평가목록을 통하여 진단하는 것이 효율적인 상담 효과를 위해 필요한데, 위기진단 과정은 면대면 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위기 진단과정에서 점검되어야 할 사항은 내담자의 위기상황, 인식상태, 정서상태, 행동상태, 내적 세계, 외적인 상황 그리고 위기에 파괴적으로 대할 가능성 등이다.

2) 내담자와 접촉점

위기를 당한 사람과 상담을 위한 첫걸음은 접촉점을 이루어 치유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상담자가 이전부터 내담자의 보편적인 위기를 돌보아 왔다면 이러한 관계가 이미 그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기에 처한 자와 좋은 관계(good relationship)형성은 위기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내담자와 좋은 관계형성을 위해서 몇 가지 요구되는 것은 감정이입(empathy), 참여이해(understanding), 용납(acceptance), 관심있는 행동(attending behaviors) 등이다.

3) 위기 개입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진단되고 관계가 설정되면 어떻게 내담자를 도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위기 개입을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위기상담에서 진단과 관계설정이 필요로 하지만 위기개입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위기가 일어난 후 처음 72시간(3일)이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며 4-6주 안에 위기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위기는 위험을 뜻하므로 위기에 개입할 수 있는 시기는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위기 상담에 있어서는 선택적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내담자가 절망, 혼란, 당황에 빠져있는 내담자에게 어떻게 개입 할 것인가? 내담자가 불안과 죄의식 그리고 긴장과 극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안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기력과 절망에 빠진 내담자는 그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도

록 격려하고 경청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극단적 결과(자살, 살인, 가출, 상해, 정신질환, 가정파괴)가 예상되는 긴박한 내담자는 즉각적으로 개입을 통하여 엄청난 결과를 막고 심리적 균형 회복을 시도해야 한다.

4) 문제해결

(1) 내담자 문제 인식: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 놓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도우면서, 내담자가 겪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 내담자가 지금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담자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가? 를 파악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확실히 밝히고 내담자로 하여금 생각이나 감정을 분명하게 정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도와주어야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 특히 내담자의 문제 인식에 있어서 현실을 분명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내담자가 현실을 거부할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그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상담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망을 심어주라: 상담에서 가장 큰 생명력은 내담자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일이다. 예를 들어 야구선수가 팔의 근육을 부분적으로 못쓰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였다고 하자. 그가 선수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구코치를 하거나 감독을 할 수도 있다. 위기를 더욱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희망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3)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수립과 행동시행: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가 파악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내담자로 하여금 무력감을 떨쳐 버리고 위기 해결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를 잃어 슬픔에 빠졌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공허한 가슴을 치유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어떤 내담자 경우

는 상담자가 직접 찾아가서 내담자가 행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4) 지지 집단 활용: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때는 그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동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떤 단체에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위기에 빠지면 고립을 느끼기 마련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걱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동원하면 내담자가 큰 용기를 얻게 된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내담자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 그 집단은 내담자에게 얼마나 힘과 격려를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먼저 도움을 청해야 할 집단은 물론 가족이다. 그러나 위기의 원인제공이 가족에 의한 상황이라면 고려해야 한다.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커다란 지지집단이 된다. 그리고 상담자가 개인적으로 아는 자중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때로는 비슷한 위기를 극복한 삶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지지집단의 도움을 받을 때는 내담자의 사생활을 지켜주어야 하고 지지집단의 자원과일이나 색인을 만들어 놓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사후배려: 사후배려는 내담자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으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사후배려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전화통화를 통해서 가능하고, 잠깐 들러서 혹은 문안으로 내담자의 위기가 적절히 해결되었는가를 보살피 줄 수 있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추후에도 언제나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V. 닫는 글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청소년 위기상황에 대한 대안을 모색 할 때 고전적 심리이론에서부터 현대 심리이론까지 절충주의를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동양학적 접근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일반 상담이론에서 아직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담 방법적인 문제보다 인간관에 따른 견해 차이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이러한 문제는 심리학과 신학을 통합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큰 장애적 요소로 보여진다. 청소년 위기에 대한 현상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일반 심리학자나 기독교상담학자 모두 공통적으로 견해를 가지는 면이 많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상담학자들이 영적인 문제를 육체와 심리 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를 일반심리학에서는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모색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담에 대한 통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위기상담의 통합 모델을 위해서 복음주의의 신학에 입각한 인간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위기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위해서는 심리학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성경적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수용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음주의 입장에서 심리학을 흡수 통합하여 발달적 위기와 상황적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한다면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미래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다양한 위기문제가 도래 할 것임으로 통합적 모델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여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후 주 *

- 1) 임영식·한상철, 청소년 심리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0), 3.
- 2) 오윤선, 한국 청소년 위기 상황에 대한 기독교상담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 복음주의 실천신학논총 통권 제3권(2002): 55-60.
- 3) Duane Schultz, *A History of Modern Psychology* (New York: Academic), 3.
- 4) Gary Collins, *Main in Motion* (Creation House, 1973), 120.
- 5) Minirth Meier & Wichern, *Introduction to Psychology of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82), 20.
- 6) Ronald L. Koteskey는 *Psychology from a Christian Perspective*에서 기독교 심리학은 학문적이고 실제적인 목표를 가졌다고 전제하면서 심리학 분야의 모든 중요한 영역과 심리학의 학파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통합하였다. Ronald L. Koteskey, *Psychology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Nashville: Abingdon, 1983), 23.

7) Gary R. Collins는 *Psychology & Theology Prospects for Integration*에서 이제까지의 통합이론들을 정리하면서 건설적인 모델 (Rebuilding Model)을 제시하였다.

8) John D. Carter와 Bruce Narramore는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에서 세속적 측면(Secular Version)에서 종교를 어떻게 통합했는지를 연구하고 또 기독교적 입장(Sacred Version)에서 심리학을 어떻게 통합했는지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John D. Carter & Bruce Narramore,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82)

9) Farnsworth, Kirk E, *Whole Bearded Integration* (Grand Rapids: Baker, 1985)

10) Jones, Stanton L, *Psychology and the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Baker, 1986)

11) Philipchalk, R.P *Psychology and Christianity*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7)

12) Mark R. McMinn, 채규만 역, 심리학, 신학, 영성이 하나 된 기독교 상담 (서울: 두란노, 2001), 7.

13) 전요섭, 신학에서 본 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잠언, 1999), 46-47.

14) Rebecca Steffoff, *Adolescence* (New York: Chelse, 1978), 4.

15) 김기태, 위기개입론 (서울: 대왕사, 1993), 16.

16) Gary Collins, *How to be a People Helper*, 정동섭 역, 훌륭한 상담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97.

17) Judson J. Swihart & Gerald C. Richardson, *Counseling in Times of Crisis* (Texas: Word Books, 1988), 20.

18) Joseph Moore, *For The Nonprofessional Counselor Helping Skills*, 전요섭 역, 비전문 상담자를 위한 상담학 (서울: 은혜출판사, 1995), 72.

19) 정태기, 위기목회상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65.

20) 이장호, 상담 심리학 입문 (서울: 박영사, 1991), 279.

21) 정태기, 48.

22) 오윤선, 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다락방, 2000), 68-70.

23) 이광자, 위기조정 (서울: 신광출판사, 1982)

24) 정태기.

25) 김기태, 위기개입론 (서울: 대왕사, 1993)

26) 오치선 외, 청소년 지도학 (서울: 학지사, 1999), 제12장 청소년상담 지도, 이해성, 485-523.

27) 한국청소년학회편, 청소년학 총론 (서울: 양서원, 1999), 제13장 청소년 상담활동, 남상인, 334-362.

- 1) 임영식 · 한상철, 청소년 심리의 이해, (서울:학문사,2000),3.
- 2) 오윤선, 한국 청소년 위기 상황에 대한 기독교상담 활성화 방안연구(서울: 복음주의 실천신학논총 통권 제3권,2002),55-60.
- 3) Duane Schultz, *A History of Modern Psych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Inc.),3.
- 4) Gary Collins, *Main in Motion*(Creation House,1973),120.
- 5) Minirth Meier & Wichern, *Introduction to Psychology of Counseling*(Grand Rapids:Baker Book House,1982),20.
- 6) Ronald L. Koteskey는 ‘Psychology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에서 기독교 심리학은 학문적이고 실제적인 목표를 가졌다고 전제하면서 심리학 분야의 모든 중요한 영역과 심리학의 학파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통합하였다.
Ronald L. Koteskey, *Psychology from a Christian Perspective*(Nashville: Abingdon Press,1983),23.
- 7) Gary R. Collins는 *Psychology & Theology Prospects for Integration*에서 이 때까지의 통합이론들을 정리하면서 건설적인 모델 (Rebuilding Model)을 제시하였다.
- 8) John D. Carter 와 Bruce Narramore는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에서 세속적 측면(Secular Version)에서 종교를 어떻게 통합했는지를 연구하고 또 기독교적 입장(Sacred Version)에서 심리학을 어떻게 통합했는지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John D. Carter & Bruce Narramore,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Grand Rapids:Zondervan Publishing House,1982)
- 9) Farnsworth, Kirk E, *Whole bearted integration*(Grand Rapids: Bate Book House,1985)
- 10) Jones, Stanton L, *Psychology and the Christian Faith*(Grand Rapids: Baker Book House,1986)
- 11) Philipchalk, R.P *Psychology and Christianity*(Lanham:University Press of America,Inc.,1987)
- 12) Mark R. McMinn · 채규만, 심리학, 신학, 영성이 하나 된 기독교상담(서울: 두란노,2001),7.
- 13) 전요섭, 신학에서 본 심리학(서울:도서출판 잠언,1999),46-47.
- 14) Rebecca Steffoff, *Adolescence*(New York: Chelse Publishers, 1978),4.
- 15) 김기태, 위기개입론(서울:대왕사,1993),16.

- 16) Gary Collins, How to be a People Helper, 정동섭 역, 훌륭한 상담자(서울:생명 의 말씀사,1987),97.
- 17) Judson J. Swihart & Gerald C. Richardson, Counseling in Times of Crisis, USA, Word Books,Texas.1988,20.
- 18) Joseph Moore, For The Nonprofessional Counselor Helping Skills, 전요셉 역, 비전문 상담자를 위한 상담학(서울:은혜출판사,1995),72.
- 19) 정태기, 위기목회상담(서울:대한기독교서회,1992),65.
- 20) 이장호, 상담 심리학 입문(서울:박영사,1991),279.
- 21) 정태기, 전계서,48.
- 22) 오윤선, 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다락방,2000),68-70.
- 23) 이광자, 위기조정(서울:신광출판사,1982)
- 24) 정태기, 위기목회상담(서울:대한기독교서회,1992)
- 25) 김기태, 위기개입론(서울:대왕사,1993)
- 26) 오치선 외, 청소년 지도학(서울:학지사.1999), 제12장 청소년상담 지도, 이해 성,485-523.
- 27) 한국청소년학회 편, 청소년학 총론(서울:양서원,1999),제13장 청소년 상담활동,남 상인,334-362.